

2023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14:00~15:00																
장 소	이삭요양원 프로그램실																
참 석 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1</td> <td style="width: 60%;">위원장(시설장)</td> <td style="width: 30%;">안은하</td> </tr> <tr> <td>2</td> <td>보호자 대표</td> <td>민상식</td> </tr> <tr> <td>3</td> <td>후원자 대표</td> <td>차정필</td> </tr> <tr> <td>4</td> <td>입소자 대표</td> <td>정금재</td> </tr> <tr> <td>5</td> <td>종사자 대표</td> <td>정서운</td> </tr> </table>		1	위원장(시설장)	안은하	2	보호자 대표	민상식	3	후원자 대표	차정필	4	입소자 대표	정금재	5	종사자 대표	정서운
1	위원장(시설장)	안은하															
2	보호자 대표	민상식															
3	후원자 대표	차정필															
4	입소자 대표	정금재															
5	종사자 대표	정서운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회의 보고 - 운영현황 보고 -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건 - 방역대응지침에 따른 확진자 휴무일의 건 - 독감, 코로나 예방접종의 건 - 노인인권 관련 제안 및 건의사항 - 폐회 선언 																
회의내용	<p>1. 개회사 및 환영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운영위원 구성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적법하게 성원 되었으므로 2023년 3분기 운영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2. 이삭요양원 현황 및 사업운영내용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9월 19일 현재 입소 현황 및 전차 회의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p>3. 안건 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안은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분기 이삭요양원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은하: 이번 분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직원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좀 더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요양팀과 간호팀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간호팀과 요양팀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 것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너무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요양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참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은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좀 더 높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8월에 공단예비평가를 신청하여 평가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예비평가 결과 좋은 평을 받았으며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더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중에는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재무회계, 인사노무,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 후원자 대표 차정필: 요양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으로서 무척 뿌듯한 기분입니다.
- 위원장 안은하: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에 시설 환경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장마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약 17,000천원을 들여 시설 전체 방수공사와 페인팅을 마쳤고, 지난 분기 말씀드렸던 생활실 내 CCTV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3,690천원과 자부담 990천원이 소요되었으며 16대를 보조금으로 14대를 자부담으로 기존의 12대를 해지하고 신규로 총 3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14,320천원, 자부담 3,580천원 예산으로 벽걸이형 환기설비를 10대 설치하였는데, 와상어르신들의 방 위주로 설치하여 오래 누워계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많은 일을 하셨네요. 생활실에 CCTV를 반대하는 보호자는 없으셨나요?
- 위원장 안은하: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 방에 CCTV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전원 동의해주셨고 이에 설치를 마쳤으며 지금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사자 대표 정서운: CCTV 운영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정말 지켜야할 수칙이 많고 까다롭더라고요.
- 위원장 안은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CCTV 영상의 관리와 보관, 열람의 문제가 개인정보와 관계되어 있다보니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이번에 사무실의 업무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책상을 교체하고 파티션을 설치하였고, 문서 수납장도 새로 만들어서 사무실이 산뜻하고 깔끔해져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 종사자 대표 정서운: 이번에 바꾼 사무실이 너무 좋습니다.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은하: 그 외에도 직원의 외부 교육 현황은 자료와 같고,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인지·정서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되고 있고, 전 직원과 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광주노인인권보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이상으로 분기 운영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대표 차정필: 없습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없습니다.
- 입소자 대표 정금재: 없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그럼, 이번 회의 토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시설장은 차등지급하며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각 이십만원, 십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추석에 외출·외박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접촉을 많이 한 외박 후 혹시나 코로나 감염이 이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침에 따라 어르신이 귀원하실 때 신속항원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9월 8일 발표된 코로나대응지침 12판의 주요골자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신규 입소자(입소 시) 선제 검사 유지, 외출·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접촉 대면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 무조건 찬성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어르신도 잘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입소자 대표 정금재: 저도 찬성입니다.
- 후원자 대표 차정필: 물론 저도 찬성하며, 외박 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복귀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하는 곳이니 좀 엄격하게 느껴지는 방역수칙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봐야죠.
- 위원장 안은하: 직원이 확진 시 그동안 5일의 격리권고 기간 중 3일은 유

급 휴일을, 2일은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앞으로는 5일의 휴일을 권고하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 종사자에게 권고하는 휴일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을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려고 합니다.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대표 차정필: 네, 앞으로 코로나 대응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직원의 휴무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관과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종사자 대표 정서운: 동의합니다.
- 입소자 대표 정금재: 네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은하: 알겠습니다. 그럼 상여금과 코로나 확진 시 휴일에 관한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은하: 이번 연도의 독감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하여, 우리 요양원도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되도록 입소자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 후원자 대표 차정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전원 접종해야죠.
- 종사자 대표 정서운: 저희 간호팀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소자 대표 정금재: 저도 모두 접종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인권에 관한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자 대표 정금재: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직원들이 노인들을 대할 때 조금만 더 부드러운 말투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데 가끔 반말로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상할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어르신에 대한 높임말 사용과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지만 또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서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반말처럼 들리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친근함의 표현이긴하지만 외부인들이 듣기엔 버릇없는 말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구요. 또 같은 말이라고해도 말투와 억양에서 느껴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어르신이 건의하신 것처럼 또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손한 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자 대표 민상식: 네, 공손한 말투와 경어사용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드리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이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 후원자 대표 차정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노인인권을 지켜드린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덧붙여 예쁜 말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 포상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어떨까요?
- 위원장 안은하: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남은 분기에 고운말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말에 직원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바른 말 고운 말 사용을 가장 잘하는 직원에게 상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 종사자 대표 정서윤: 직원들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 같습니다.
- 입소자 대표 정금재: 나도 좋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네 그럼 모두 찬성하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고운말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원은 발견 즉시 주의를 주고 계속될 경우 시말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다른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운영위원 일동: 없습니다.
- 위원장 안은하: 그럼 여기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의 때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